

<보고서>

#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겨울, 북유럽의 디자인 / 오로라

2018년 1월2일- 1월29일

푸른솔초등학교 (직급) 교사 (성명) 류제열

#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개요

1. 연수주제 : 인간 위한 가치를 담은 디자인.
2. 연 수 국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외 2국
3. 연수일정 : 2018년 1월 2일~ 1월 29 일 (28일간)
4. 연수 중 방문지

코펜하겐 일대 : 덴마크 디자인뮤지엄, 루이지아나 현대미술관

말뫼 : 말뫼 성 시립박물관, 시립 현대미술관, 디자인센터

예테보리 :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오슬로 : 국립미술관, 뭉크미술관, 비겔란 조각공원, 오슬로시청

플롬 : 세계문화유산지구 내뢰이 피요르

베르겐 : 세계문화유산지구 브리겐, 국립미술관

스톡홀름 : 근대미술관, 동아시아박물관, 시민문화센터

투르쿠 : 투르쿠 성

사리셀카 : 우르호 케코넨 국립공원

상트페테르부르크 : 예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 박물관

바르샤바 : 성 십자가 성당, 구시가지, 성 요한 성당

## 5. 주요활동

북유럽 미술관의 미술작품 사진 자료 수집, 디자인 요소 자료 수집, 중세 유럽문화 자료 수집, 북유럽 여행 정보 수집

## 6. 연수의 효과

- \* 북유럽 디자인 관련 자료를 수집, 수업의 발상 지도에 활용할 수 있음.
- \* 피요르 지형, 오로라에 대한 사회과 학습 자료를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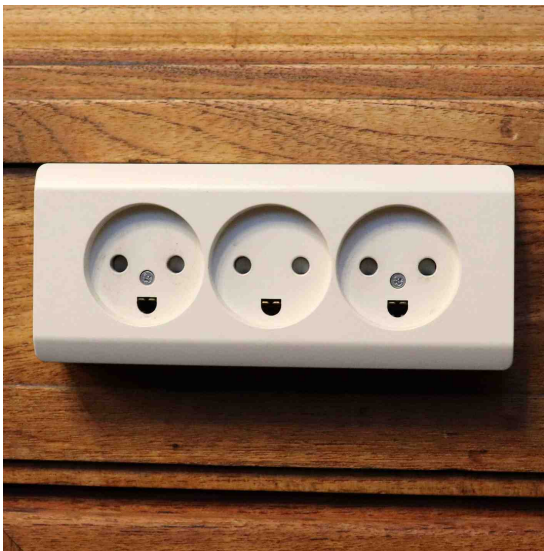
## < 차례 >

연수의 개요	1
1. 디자인	3
2. 복구의 회화와 뭉크	12
3. 오로라, 노르딕 스키	15
4. 출입국 확인	17

# 1. 디자인 (생활, 건축)

북유럽 각지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거리에서 발견되는 생활 디자인 요소들은 오래된 민주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원주의와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시각을 알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각국에 비해 시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민주주의 쟁취 역사가 짧은 데다, 다양한 시각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여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현존 최고 수준의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북유럽 각국을 다니며 그들의 생활 속에 스며든 인권 친화적 디자인 요소들을 찾아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전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 코펜하겐 도서관



▲ 유럽은 접지 콘센트를 사용하는데 열핏 보기에 유쾌한 스마일의 표정으로 보인다. 고정을 위한 나사못도 코를 나타내는 듯 하여 변화와 유머를 표현.



▲ 승강기는 원래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이곳엔 우리나라에 비해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 ■ 말뫼 성 시립박물관

말뫼는 스웨덴 조선 산업의 중심 도시였으나 한국 등 후발 조선대국이 흥하면서 조선 산업의 주도권을 잃고 설비를 단 1달러에 한국의 현대 조선소에 넘기는 등 고전하였으나 현재는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도시입니다.





▲ 옷장과 가방을 보관하는 캐비닛. 긴 외투를 자주 사용하는 추운 북극의 특성상 외투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사용되었다.



▲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로 나타낸 식당의 후추와 소금통. 말뚝 현대미술관 부설 식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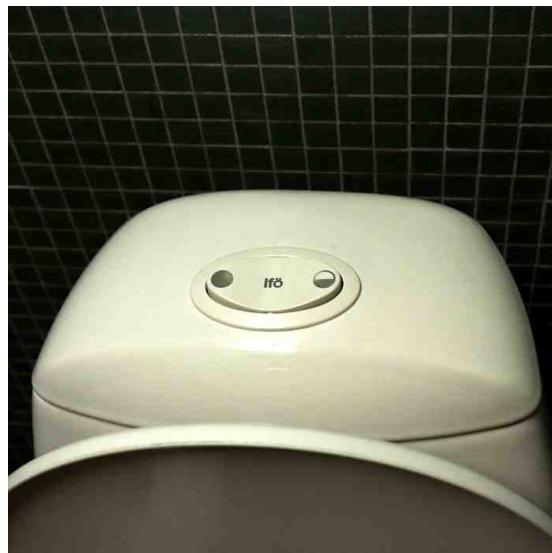
## ■ 스톡홀름 근대미술관

현재 성 편견에 대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지만 화장실 아이콘을 보니 원래 이곳의 성평등적 사고는 매우 진보적으로 보입니다. (화장실 청소 인력도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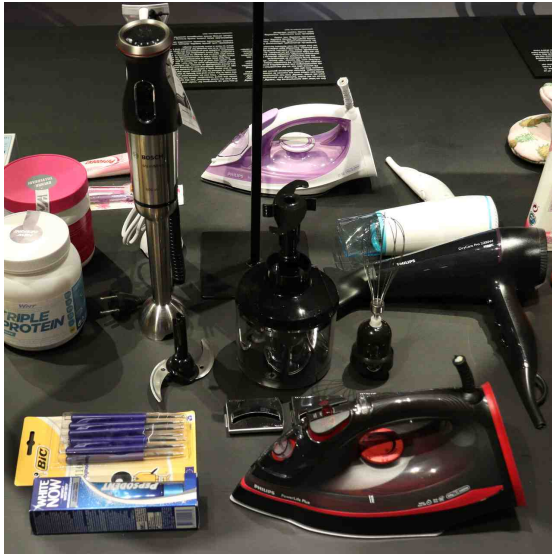
### Toaletter Toilets



▲ 북유럽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남녀공용이며 소변기가 없어 남자도 좌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어 상당히 깨끗한데 이곳은 특히 공용 부분에 다양한 성을 표현함.



▲ 소변과 대변을 처리할 때 2WAY방식의 버튼을 활용하는 점은 북유럽 모든 화장실이 동일하나 이곳은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나타내었음.



▲ 유아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은연중에 정립되는 성역할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



▲ 뾰얏게 하얀 드릴과 투박한 녹색 푸드 프로세서.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대비.

## ■ 바르샤바 성탄 축하 작품 전시



▲ 성탄의 이미지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나타낸 시민들의 아이디어. 폴란드는 비록 유럽 내에서도 저개발 국가에 속하지만 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유럽의 최고 수준.





▲ 이 이미지의 압권은 계란으로 나타낸 성탄. 추상으로 가기 직전의 극단적 단순화가 여기 있다.



▲ 2018년의 새로운 작품, 종이와 재활용품으로 나타냄.



▲ 2018년의 놀라운 창의성. 세상에, 나사로 표현하는 성탄이라니...

## ■ 건축, 구조물 디자인

말되는 친환경 미래 도시답게 거리 전체가 디자인 요소들로 가득입니다.



▲ 과거 건축물의 색감을 현대 건축에 그대로 가져온다. 과거와 현대의 자연스러운 콜라보.



▲ 임해 어업 중심지 말뚝. 지하철역은 고래 형상





▲ 등은 위에 달아야만 한다는 편견을 깨니 언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등이 만들어졌다.



▲ 노르웨이 제2도시 베르겐 공항 대기실. 어린이 놀이터와 대기 승객을 위한 최고 수준의 편안한 의자가 준비됨.

## ■ 레고 센터

코펜하겐의 보행자 중심 거리 스트뢰에에는 일룸 볼리후스라는 엄청난 창의성의 디자인 가구 몰과 레고센터가 있습니다. 일룸 볼리후스의 가구 아이디어는 판매를 위한 상품 이기에 자료로 수집하지 못했지만 레고 센터에서 레고를 즐기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 다양한 조각들을 원하는 만큼 가져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구입도 가능



▲ 레고 삼매경에 빠진 아빠와 아들. 어디에나 이런 풍경이.





▲ 어? 레고가 픽셀 아트의 원조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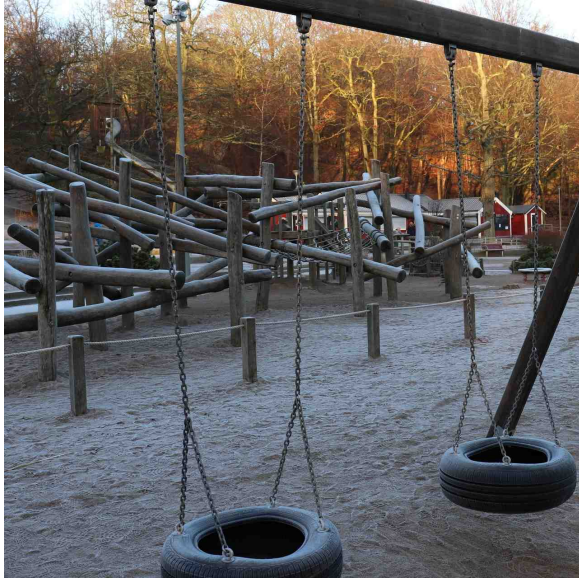


▲ 레고로 표현한 디지털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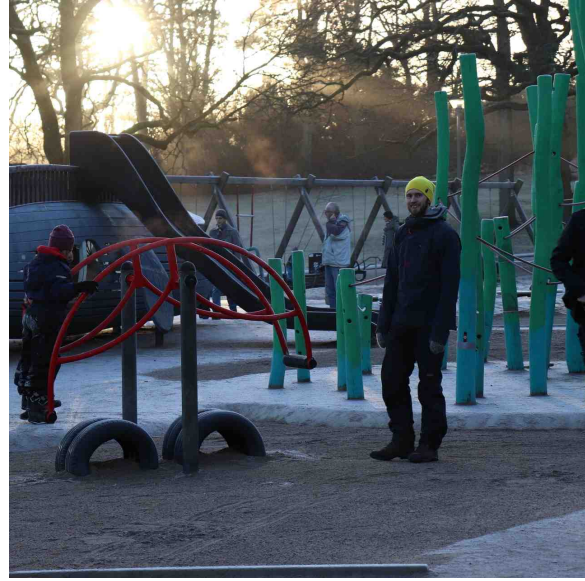


## ■ 자연을 활용한 디자인 - 플릭타와 플로엔

플릭타는 스웨덴의 예테보리에 있는 유명한 자연놀이터입니다. 9시에 개장이라 했지만 공원 가운데 있어 개장 시각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놀이터를 관리하는 센터와 관리 인력이 업무를 시작하는 시각이 9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주복을 입혀 아이들이 자유롭게 흙을 묻히며 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남자라는 점도요. 9시가 되니 눈으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는 나무토막들에 흙을 뿌려 미끄러움을 방지합니다. 친환경 그 자체입니다.



▲ 예테보리 플릭타 놀이터 나무 정글집



▲ 예테보리 플릭타 놀이터



▲ 노르웨이 베르겐 플로엔산 놀이터





## 2. 북구의 회화와 몽크

스웨덴 예테보리 미술관,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미술관, 몽크미술관, 노르웨이 베르겐 시립미술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박물관 다섯 곳을 차례로 다니고 나니, 북유럽 특유의 독창적 미술 작품들이 유럽 각국의 작품과 어떻게 다른 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야와 극야가 여름 겨울로 번갈아 나타나는 지리적 특징, 특히 극야 시기인 겨울에는 낮도 짧는데 그나마 맑은 날씨가 흔치 않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의 특성 때문인지 빛을 나타내거나 어둠 속에 드러나 작은 빛으로 만들어지는 풍경을 정성스럽게 그린 작품이 많았습니다.

또, 인간이 살기 힘든 자연환경으로 인해 온전히 보존된 장엄한 자연환경을 표현한 회화 작품들도 많이 보입니다. 달 dahl 과 크록 Khrog 문테 Munthe 등 대표적인 작가들은 눈에 보이는 장엄함을 최대한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극사실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자연에 대해 그가 자연에 대해 느낀 감동을 관람자에게 그대로 전해 주는 멋진 작품을 그려 오랜 시간의 미술관 탐방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 Dahl 의 밤 풍경, 빛의 표현이 아름답다.



▲ Gud.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피요르 하르당에르를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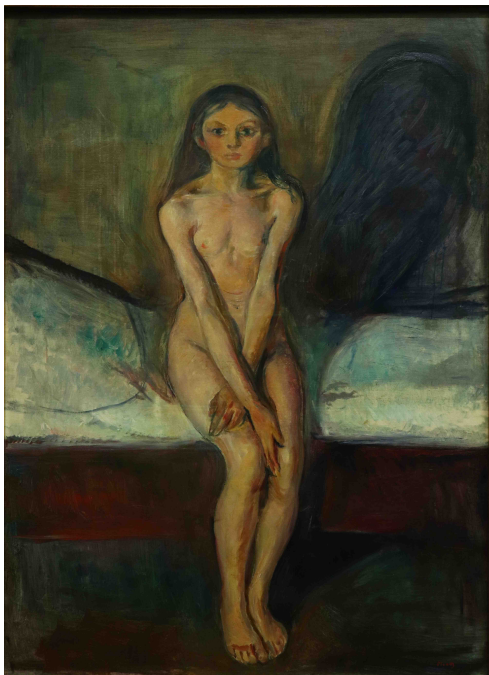
▲ 물의 퍼짐 표현이 소름끼치도록 세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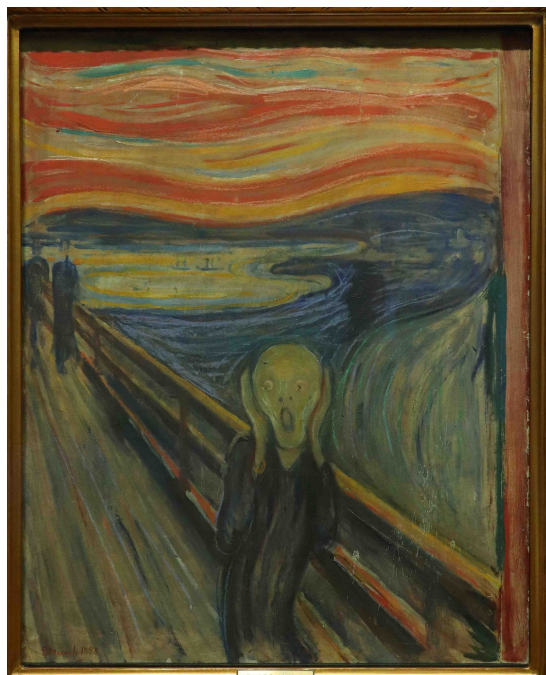


▲ Ekeland. 마지막 총성. 1940년작.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작가 몽크.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작가이면서 표현주의 작가입니다. 빛을 중시하는 인상주의와 달리 영혼의 표현을 나타내는데 주력한 화풍입니다.



▲ 몽크, 사춘기



▲ 몽크, 절규

### 3. 오로라와 노르딕 스키

#### ■ 오로라 관측지 킬로파 Kiiloppa, 크로스컨트리 스키

사리셸카는 북위 68.5도의 북극권 내 도시입니다. 그 중 Kiiloppa Fell Center는 우르호 케코넨 국립공원의 초입에 지어져 있고 불빛이 비치는 변화가와 15km이상 떨어져 있어 천체관측과 오로라 관측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21~1/24일까지 방문했는데 두 번째 날인 1/22일 마침 밤 날씨가 맑고 온도가 -25도 정도로 매우 낮았기에 오로라를 관측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0시 경에는 광원이 전혀 없는 국립공원 지역에서도 주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오로라의 빛이 강했습니다. 그 외 날들은 대부분 흐리거나 눈이 왔습니다. 노르딕 스키는 크로스컨트리라고도 합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알파인과 달리 언덕을 헤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짐승의 사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등 눈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전통적인 지역민들의 발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지방에서 오래 전부터 이와 비슷한 생활 도구들이 발달되었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것이 아쉽습니다.



▲ 1/22일 빛이 극대화되던 시간.





▲ 1/22일 숙소 뒤편,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오로라



▲ 크로스컨트리 스키로 아호파 산에 오른다.

#### 4. 출입국 확인

